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감사예배

인도자 : 가족중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559장**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인 도 자**

성경말씀 **시 1:1~6** **인 도 자**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설 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말 은 이**

매년 추석이 되면 수천만 명의 귀성객이 고향을 향합니다. 귀성전쟁이란 말이 있을 만큼 고생스럽지만 굳이 고향을 찾는 것은 그곳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창조한 걸작품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 가정을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마지막 피조물인 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창 1:31) 이 말씀은 창조의 완성을 기뻐하셨다는 뜻이지만, 특히 인간 창조를 기뻐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창 2:21~25)

그런데 사탄은 최초의 가정을 파괴한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종말의 날까지 가정을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왕 노릇을 하려다 가정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지상의 작은 천국이여야 할 가정이 작은 지옥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 노릇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된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그리고 가정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지상의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함께 불렀던 노래로, 가정의 복을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부부(부모)와 자식들이 신앙과 사랑 안에 함께하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3절).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특히 좋아합니다. 두 나무의 공통점은 열매를 맺는 유실수라는 점입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온 식구가 열심히 일하고 함께 먹으며 행복을 만끽합니다. 복되고 형통하며 자자손손 번성합니다(6절).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야 함을 강조합니다(1,6절).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무서워하고 멀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경심을 갖고 잘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경외의 신앙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제시하는 인생의 바른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면 프랑스의 농민화가 밀레의 ‘만종’ 이 생각납니다. 부부가 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황혼 무렵 은은히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감사기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신앙과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평범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보다 집을 꾸미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스하우스(nice house)는 있는데 스위트홈(sweet home)이 없다.” 아무리 집이 화려하고 대궐 같아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호의 호식해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신앙과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농부든 왕이든 자신의 가정에서 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가정의 평화는 오직 신앙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쪼록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사랑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49장 다 갈 이

1.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자를 주가늘 함께 하시리라
2.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3.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4. 우리 받은것을 주께 다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5.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후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주기도문 다 갈 이

(교 재)

오늘 우리 가정이 있기까지 선조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조들의 은혜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 간증해봅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계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합니다.

2020 추석명절 가정에 배순서지

